

나주시, 냉해 대응 국산 신품종 배 육성·보급

강인규 나주시장, 개화기 착과 안정사업 도비 지원 건의 저온에 강한 신품종 신화·창조 2만4000그루 보급 예정

배 주산지인 나주시가 기후변화로 매년 봄 개화기 때마다 되풀이되는 '배 저온피해' (냉해)에 적극 대응해 저온에 강한 국내육성 신품종 배 육성·보급에 나선다.

개화기 저온피해를 입은 배꽃은 인공수분을 통한 수정이 어렵고, 열매가 맺혀도 이후 발육 부진으로 모양이 일정치 않은 기형과(果)로 성장하고, 가을 출하기 등의 품배로 판정받아 한해 농사를 망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0월부터 3년간 저온피해 발생 과원에 대한 국내육성 품종 보급을 통한 수종 갱신과 적기 수분을 도와줄 돌배나무 등 자연수분수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보급 예정인 저온에 강한 국내육성 배 품종은 신화·창조로 3년생 묘목 2만4000그루를 농가에 지원하는 게 목표다.

수종 갱신은 나주배 수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신고배'가 저온에 취약해 매년 착과불량 피해가

반복되는 고리를 끊고, 명품배 생산 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 봄 개화기에 맞춘 인공수분이 한창이던 지난달 3~4일 이틀 간 내린 비와 서리로 일부 배 농가에서 수정·착과불량 피해가 발생했다.

각 읍·면·동에서 오는 25일까지 저온피해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전체 배 재배 면적(1783ha) 중 20%(360ha)에서 저온에 의한 착과 불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확한 전체 피해면적 산출은 정상 착과한 배 열매 봉지 씌우기가 끝나는 5월 말에서 6월 초가나 집계될 전망이다.

나주시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전체 배 재배면적의 52%, 76.2%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4월1일부터 4일까지 이상저온에 의해 배 과수 1729.9ha가 저온피해를 입었다.



강인규 나주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지난 14일 나주시 금천면 배 저온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지사(오른쪽 두 번째)와 신정훈 국회의원(오른쪽 첫 번째)에게 개화기 착과 안정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강인규 나주시장은 "피해 예방시설 지원과 신품종 보급 외에도 나주배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저온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 지원을 위해 정부, 전남도와 협의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 가우도출렁다리,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로

명칭 변경... 교통약자 위해 섬 입구 모노레일 7월 임시 개통

강진 가우도출렁다리가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로 재탄생한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가우도와 대구면·도암면을 연결하는 가우도출렁다리의 명칭을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로 새롭게 변경해 운영에 들어간다.

2013년 준공된 가우도출렁다리는 강진군의 핵심 관광지인 가우도를 대구면 저두리(438m)와 도암면 망호리(716m)를 연결한 해상보도교다.

가우도는 해안선을 따라 약 3km의 산책로와 쥘트랙 등의 즐길거리가 많아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강진군 대표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가우도 출렁다리는 이름과 다르게 실제로는 출렁이지 않아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

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진군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3차례 명칭 변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가우도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칭을 변경했다.

도암면 망호와 연결되는 다리는 다산초당이 도암면에 위치한 것을 착안해 '다산다리'로 명칭을 바꾸고, 대구면 저두와 연결된 다리는 '청자다리'로 바꾼다. 이 두 다리를 통칭해 '다산과 청자 만남의 다리'로 정했다.

또 군은 가우도 내 새로운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해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가우도 내에 실제로 움직이는 출렁다리(길이 150m, 폭 1.8m)를 지난해 말 가설하고, 데크시설 등 마무리 공사를



6월 개통 예정인 가우도 내 실제로 움직이는 출렁다리 조감도. <강진군 제공>

통해 오는 6월 개통한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섬 입구와 청자타워 정상을 잇는 모노레일(길이 264m, 30인승 2량)을 오는 7월 임시 개통할 예정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가우도출렁다리의 명칭을 변

경함으로써 가우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선사하고, 움직이는 출렁다리와 모노레일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확충해 가우도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에 고소득 귀농인 가장 많은 이유 있었네

연평균 1500가구 귀농·귀촌 정착 품목별 상담 멘토단 구성 등 예비 귀농인 맞춤형 지원 강화

전남지역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 귀농인' 최다 지역인 장성군이 예비 귀농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17일 전남도가 2020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농가·법인에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귀농인은 총 75농가로 확인된 가운데 장성에 가장 많은 11농가가 거주하고 있다.

'귀농·귀촌 1번지'로 잘 알려진 장성군은 맞춤형 지원과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 결과 연 평균 1500가구의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이전보다 확대된 총 8개 사업을 펼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의 지역 융화를 돕는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지원사업'부터 새내기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귀농인을 돕는다.

최근에는 예비 귀농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기 위해 딸기, 토마토, 스마트팜 등 12개 '품목별 상담 멘토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 직장인부터 품목을 결정한 귀농인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정기 교육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예비 귀농인이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멘토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분야 멘토가 농장을 방문해 조언과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독보적인 지원 정책 추진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적극 돕겠다"면서 "품목별 상담 멘토단이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 미래 축산업 육성 박차 최첨단 경매 시설 구축 등

화순군이 스마트·친환경을 가치로 '미래 축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그동안 친환경 축산 농장 확대와 가축 분뇨 자원화와 악취 저감을 통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축산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왔다.

군은 최첨단 경매 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 내 가축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축 개량으로 전남 으뜸 한우 브랜드 육성에 힘을 예견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 친환경 축산 인증 농가 확대로 환경 친화형 축산 농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축산 현대화 사업, 녹색 축산기금 사업에 41억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60호, 깨끗한 축산 농장 지정 신청 97호, 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 축산농장 지정 17호 등 환경 친화형 농장 육성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군은 분뇨 적정 처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축산 악취 개선 사업과 미생물 악취 저감제 등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육성, 품질 관리, 기계 장비, 파종비 등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에도 25억2900만 원을 지원해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조사료 이용률을 높여 가축의 건강과 육질 향상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축산물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유통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최첨단 경매 시설(가축 시장) 신축을 지원해 가축 거래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축산 농업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환경 친화형 축산 농장을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노인건강충전교실 운영 심뇌혈관·치매 예방 등 관리

담양군이 다음달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노인 건강충전교실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상호 정서적 교류와 심리적 안정등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건강충전교실은 발관리, 원예요법, 공예품 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교실은 상반기에는 새로 단장한 청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에서, 하반기에는 담양군보건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김순복 담양군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이 조심스럽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신체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 되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 된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이든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